Jour. Fish. Mar. Sci. Edu., 20(1), pp.68～77, 2008 水産海洋教育研究, 20(1), 2008

학점은행제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한 일고찰

김재춘† · 박소영
(† 영남대학교 · 부산대학교)

A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the Standard Liberal Arts Curriculum in Accordance with the Credit Bank System

Chae-Chun GIM† · So-Young PARK
† Yeungnam University · Pusan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September 27, 2007 / Accepted December 1, 2007)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rganization of the standard liberal arts curriculum in accordance with the academic credit bank system (ACBS). With the growth of the system, the standard curriculum of the ACBS turned out to have many problems which have to be solved for securing and maintaining the quality of the system. In an attempt to improve the standard liberal arts curriculum of the ACBS, the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standard liberal arts curriculum of the ACBS according to three criteria: the organization of subjects in the six liberal arts curriculum areas, the completion of liberal arts and the exchange subjects between majors and the liberal ar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standard liberal arts curriculum. In the future,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to explore ways to implement the proposed standard liberal arts curriculum of the ACBS in real contexts.

Key words : standard liberal arts curriculum, the academic credit bank system, curriculum organization, higher education

Ⅰ. 서 론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세계적으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1998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676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학점은행제의 제도 개선이나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자율성 제고, 학점은행제 평가 준거 개발, 학점은행제 운영 체제 개선,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박인종 외, 2001; 백은순 외, 1997, 2003; 유균상, 2005; 정기수, 2005; 최돈민,

† Corresponding author : 053-810-3121, ccgim@ynu.ac.kr

1999; 최운실, 2005). 그러나,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데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체계적 검토는 부족한 편이다.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은 제정된 이래로 10여 차례에 걸쳐 표준교육과정 개정과 교수요목 고시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다. 표준교육과정은 1998년에 최초로 개발되어 지금까지 약 10년 간 적용되면서 2006년 10월 기준으로 평가인정기관 463개, 평가인정 학습과목 약 17,000개, 표준교육과정 439개, 교수요목 약 9,000개으로 팽창 확대되어 왔으며, 학습자 등록생 약 15만 명,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는 약 5만 명에 이르는 등 양적으로 급속하게 팽창해왔다.

이제 표준교육과정은 양적인 팽창 뿐만 아니라 질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있다. 표준교육과정은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으로 구분된다. 전공과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는 것들에는 첫째, 유사 전공과 유사 과목이 난립하는 문제, 둘째, 학사 과정과 전문학사 과정 간의 구분 및 연계 불분명 문제, 셋째, 필수과목 존폐 여부 및 전공 간 과목 수 불균형 문제, 넷째, 교과목의 코드화 문제 등이 있다(김재춘 외, 2006).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단초를 제공하여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표준교육과정의 교양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고, 이에 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많은 일반 대학에서는 전공 및 진로를 탐색해야 하는 1학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향상시키고, 계속해서 다양한 전공을 재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해주려는 등의 이유로 교양교육을 강화하고 있다(서울대학교, 2006; 성균관대학교, 2006). 특히 21세기 미래의 고등교육체제는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 다학문적 접근과 다전공적 접근이 이루어짐으로써 학과의 특성이 희석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전공, 무학년, 무국적, 무필수전공 등 다양한 요소가 가미될 것으로 보인다(이현청, 2005). 이는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세부 전공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전공들과 연계될 수 있는 기초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임을 시사하는 미래 추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점은행제의 발전과 표준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을 위하여 특히 교양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그 편성 현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학점은행제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현황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학점은행제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학점은행제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현황

표준교육과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20222호) 제17조에 따라 교양과목 및 전공영역별 전공과목의 학점, 이수시간 등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표준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학습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된다.

교양과목은 학문영역별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과목으로서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교양과목의 분야는 인간과 사회, 철학과 역사, 국어와 문학, 자연과 환경, 예술·문화·체육, 외국어의 6개 분야로 구성되었다. 현행 교양과목은 총 357개이며, 그 중 110개의 과목은 전공-교양 호환과목으로 분류된다. 이 과목들은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전공 또는 교양 학점으로 인정된다. 교양과목의 이수는 학습자의 자유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며,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과정별로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교양교육과정의 영역과 과목은 <표 1>과 같다.

<표 1> 교양교육과정의 영역 및 과목

영역	과목수	과목명
인간과 사회	105	가정관리학의 이해 외
철학과 역사	48	고고학탐구 외
국어와 문학	17	고전한시의 이해 외
자연과 환경	66	PC활용Ⅰ외
예술·문화·체육	99	검도Ⅰ외
외국어	22	독일어 외
계	357	·

학위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은 교양, 전공, 총 취득학점별로 제시된다. 학사의 경우, 교양 최소 30학점, 전공 최소 60학점, 총 취득학점은 최소 140학점이다. 취득제한학점은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이다.

<표 2> 학위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교양 이수	전공 이수	총취득 학점	취득 학점 제한
학사	최소 30학점	최소 60학점	최소 140학점	

표준교육과정에 제시된 '전공-교양 호환과목'은 교양과 전공 학습과목 중 명칭이 동일하거나 각 학습과목 내용의 70% 이상이 일치하는 학습과목으로서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교양 또는 전공의 학점으로 인정가능하다. 2006년 8월을 기준으로 'PC활용Ⅰ'을 포함한 110개의 교양과목이 전공-교양 호환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Ⅲ. 교양교육과정 편성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 탐색

교양교육과정의 문제점은 영역간 과목 편성, 영역별 과목 이수, 전공-교양 호환과목의 편성 및 이수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1. 영역 간 과목의 균형 편성

현행 교양교육과정은 6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총357개의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로 인간과 사회 105개, 철학과 역사 48개, 국어와 문학 17개, 자연과 환경 66개, 예술·문화·체육 99개, 외국어 22개 과목이 제시되어 있다. 교양교육과정은 각 영역별로 어느 정도 교과목들의 수적 균형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과 사회 영역에서는 100여 개의 과목이 편성된 반면, 외국어 영역에서는 20여 개의 과목이, 국어와 문학 영역에서는 10여 개의 과목만 편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로 편성된 과목의 수가 최소 17개, 최대 105개로 이는 88개의 과목수 차이를 지닌다.

교양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은 교양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형태로 편성되어야 한다. 즉, 교양교육과정의 6개 영역들은 동등한 자격으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동등한 자격이란 각 영역별로 50여 개씩 과목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산술적 의미의 평균이 아니라, 교양교육에 포함되는 6개 영역이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 속에서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양교육과정은 인간과 사회, 자연과 환경, 예술·문화·체육 영역의 교양교육에 치중하여 다른 영역들을 경시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대학 교양교육과정의 경우, 각 영역별로 과목들의 수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교양교육과정을 강화한 S 대학과 Sk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영역별 과목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 대학교의 경우, 교양교육과정을 학문의 기초, 핵심교양, 일반교양으로 구분하였다. 학점은행제 교양교육과정의 영역 구분과 유사한 핵심 영역의 경우, 문학과 예술, 역사와 철학, 사회와 이념, 자연의 이해의 4개 영역별로 각각 20여개씩의 과목을 편성함으로써, 영역 간 과목 구성의 균형이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Sk 대학의 경우에도

핵심균형 교양과목에 해당하는 인간/문화의 이해, 사회/역사의 이해, 자연/과학/기술의 이해의 3개 영역별로 각각 20-50개의 과목들을 편성하였다. 자연/과학/기술의 이해 영역에 편성된 과목 수가 타 영역에 비해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그리 큰 차이를 지닌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영역간 과목 구성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일반대학교 교양교육과정의 영역별 과목 구성 예시는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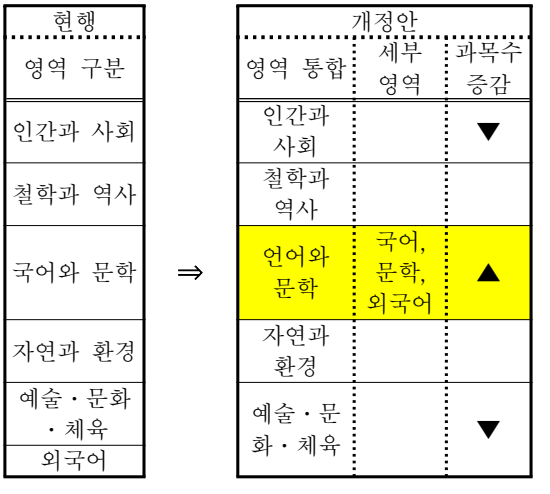
<표 3> 일반대학교의 교양교육과정 영역별 과목 구성

S 대학교			Sk 대학교		
교양 구분	세부 영역	과목 수	교양 구분	세부 영역	과목 수
학문의 기초		120개	중점 교양		42개
핵심 교양	문학과 예술	24개	핵심 균형	인간/문화의 이해	54개
	역사와 철학	22개		사회/역사의 이해	45개
	사회와 이념	29개		자연/과학/기술의 이해	24개
	자연의 이해	23개			
일반 교양			일반 교양		

일반대학 교양교육과정의 영역간 과목 편성의 균형에 비추어, 학점은행제 교양교육과정에서도 영역 간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영역 재편성 방안'이나 '과목 재구성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영역 재편성 방안이란 예컨대, 국어와 외국어를 통합하여 언어 영역으로 조정하고, 문학 영역의 경우에는 이를 인간과 사회 혹은 예술·문화·체육 영역과 통합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기존의 과목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역간 과목 구성의 균형을 꾀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둘째, 과목 재구성 방안이란 과목의 신설, 폐지, 통합 등의 방안이다. 과다하게 과목이 나열된 영역에서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화될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으로만 과목이 제시된 영역에서는 보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과목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인간과 사회 영역의 경우 100여개의 과목 구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타 영역으로 옮기거나 유사한 과목들을 통합 내지 불필요한 과목들을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어와 문학 및 외국어 영역의 경우 과목들을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각 영역별로 편성 과목 수의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영역 재편성 및 과목 재구성(안)

요컨대, 교양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의 균형성을 추구하기 위해, 먼저 교양교육과정 영역 구분의 적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구분된 각 영역들이 모두 존중될 수 있도록 과목을 각 영역별로 골고루 편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영역별 과목 이수

현행 학점인정제에서는 교양과정을 인간과 사회, 철학과 역사, 국어와 문학, 자연과 환경, 예술·문화·체육, 외국어의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에 상관 없이 최소이수학점을 이수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편성하였다. 즉, 학사과정의 경우 최소 30학점을, 2년제 전문학사는 최소 15학점을, 3년제 전문학사는 최소 21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영역별 균형·분산이수보다는 특정 영역 내에서의 집중 이수 현상과 전공과의 비연계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첫째, 영역별 균형·분산 이수와 관련하여, 많은 일반 대학교에서는 교양과목의 각 영역별로 최소 이수학점을 제시함으로써, 특정한 영역에 편중된 교양과목 이수를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S 대학교에서는 교양과목을 학문의 기초, 핵심교양, 일반교양의 3층위로 분류하면서, 그 중 하나인 핵심교양층위를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간 균형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즉, '핵심교양'은 4개 영역(문학과 예술, 역사와 철학, 사회와 이념, 자연의 이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로 20개 이내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9학점 이상을 모든 대학이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특히 인문, 사회계열은 자연의 이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자연, 이공계는 자연의 이해 영역 밖에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Y 대학교의 경우에도 교양과목 5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에서 각 영역별로 1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Sk 대학교의 경우에도, 각 영역별 과목 이수 학점을 2~4 학점으로 <표 4>와 같이 규정한다.

교양교육은 전공교육과 달리, 특정 전공에 국한된 교과목의 범위를 벗어나, 다양한 영역의 학습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영역의 교양과목을 학습한다는 것은 자신의 전공 및 진로를 보다 종합적으로 탐색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전공 및 진로에 대하여 보다 계획적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교양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규정을 제시하는 방안의 도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예컨대, 6개 영역 중 최소한 3개 영역 이상에서 영역별로 각 1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특정한 1개 영역에만 제한된 교양과목 이수를 예방하고, 최소한 3개 영역 내에서 과목을 골고루 이수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표 4> Sk 대학교의 교양교육과정 영역별 과목 이수 현황

영 역			최소 이수 학점
Sk 중점 교 양 (16학점)	유학사상과 가치관		2 학점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4 학점
	사고의 기초		2 학점
	디지털 정보문해		2 학점
	글로벌 문화	기본영어	4 학점
		전문영어	2 학점
		글로벌	
		리더십	
핵심균형 교 양 (9학점)	인간/문화의 이해		3 학점
	사회/역사의 이해		3 학점
	자연/과학/기술의 이해		3 학점
일반교양	일반 교양		자유 선택
합 계	9개 영역		25 학점

현행		개정(안)
5개의 영역 내 과목 이수에 대한 규정 없음	⇒	최소한 3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그림 2] 영역별 과목 이수(안)

둘째, 전공과의 비연계 가능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현행 학점인정제의 교양교육과정에는 필수과목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모든 교양과목은 6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열거되어 있을 뿐, 어떤 교양과목을 이수할 것인가는 학습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다. 학습자는 교양과정에 요구되는 최소이수학점만 이수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양과목의 자유선택제는 학습자에게 교과목 선택권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그런데, 최근 많은 일반 대학에서는 전공 및 진로를 탐색해야 하는 1학년 교육의 중요성, 저하된 기초학력의 향상, 그리고 예측 불허한 시대에 대비하여 계속해서 전공을 재창출할 수 있는 능력 계발 등의 이유로 교양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교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양교육과정을 개편한 S 대학교(2006)의 경우, 기존의 학문관심영역별로 분류하였던 것을 3개 층위(학문의 기초, 핵심교양, 일반교양)로 재분류하면서, 대학필수, 계열필수, 전공필수 교양과목제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교양과목의 필수제는 Sk 대학교(2006)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Sk 대학교에서는 기초·교양과목의 영역으로 성균중점교양, 핵심균형교양, 일반교양, 기초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성균중점교양의 경우 지적·언어적 능력의 함양과 성균관대학교 고유의 학풍을 익힐 수 있도록 '유학사상과 가치관'을 포함하여 5개의 대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 내에서 최소이수학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곧 교양필수과목군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P 대학교(2006)의 경우에도 정보화 소양·교양 필수 과목으로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기초 한국어, 실용 영어(Ⅰ), 실용컴퓨터(Ⅰ) 등 9개 과목을 지정하고 있다.

많은 대학들이 교양과목을 학문의 영역별로만 구분하지 않고, 대학생의 지적 역량과 학문적 역량을 모두 함양할 수 있도록 교양필수제를 도입하고 있다. 교양필수과목은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공통 내용과 경험 중심이며, 폭넓은 지식의 습득을 강조한다. 따라서 현행의 학점인정제에서와 같이 교양교육과정을 자유 선택으로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사회의 변화나 전공과의 관계, 그리고 학습자의 요구들을 고려하여 그리 엄격하지 않으면서 고등교육을 받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데 필수적인 과목의 이수가 가능한 교양필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양 필수제의 도입을 위해 교양핵심과목제를 도입하거나 전공별 교양과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교양핵심과목제'란 교양필수 성격의 과목을 일정 수 선택하여 교양핵심과목으로 설정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최소 2개 이상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교양필수의 성격을 지니면서 동시에 그 범위 내에서 자유 선택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통의 학습 경험과 학습자의 학습 과목 선택권을 모두 기대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둘째, '전공별 교양과목제'란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데 꼭 필요한 교양과목을 각 전공에서 필수로 지정하는 방안으로 일반 대학들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전공과목으로서의 성격은 약하지만, 전공을 공부하는 데 꼭 필요한 교양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전공필수 교양으로 지정하게 되면 교양 함양의 측면에서나 전공 학업 수행의 측면에서 모두 유익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전공별로 전공필수과목도 과다한 현 학점은행제 체제 하에서 교양과목까지 전공 필수로 규제할 경우,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이 과다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모든 전공에 전공 교양 필수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형태보다는 필요에 따라 각 전공에서 전공 교양 필수를 1, 2과목 이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교양핵심 과목(안)	전공별 교양과목 (안)
교양 이수 과목에 관한 규정 없음	⇒	교양핵심과목 범위 내에서 최소 2개이상 선택	각 전공에서 교양 필수로 1, 2과목 지정

[그림 3] 영역별 과목 이수 관련 개정(안)

3. 전공-교양호환 과목 편성 및 이수

교양과목은 순수 교양과목과 전공-교양 호환과목으로 분류된다. 전공-교양 호환과목에는 110개의 과목이 있으며, 이 과목들은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에 이중으로 제시되어 있다. 즉, 각 전공의 학습자들은 전공-교양 호환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할 수도 있고 교양과목으로 이수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전공-교양 호환과목 설정 근거 부재 문제와 둘째, 전공-교양 호환과목 중심의 전공 학점 이수 가능성이다.

첫째, 전공-교양 호환과목 설정 근거 부재 문제를 살펴보면, 110개의 호환과목들은 각각 관련 전공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최소 1개의 전공과 관련되는 호환과목에서부터 최대 24개의 전공과 관련되는 호환과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편성되었다. 그 구체적인 현황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호환과목의 관련 전공 현황

관련 전공	전공-교양 호환 과목	과목수
1 개 전공	결혼과가족, 국문학개론, 국사개설, 국어학개론, 노년학, 논리학원론, 동서문화교류사, 동양문화사, 문학개론, 문화관광론, 부동산투자론, 비서학개론, 사회체육개론, 생활무용, 서양문화사, 소프트볼, 스케이트, 스쿼시, 식생활관리, 아동독서및글쓰기지도, 인간공학탐구, 재즈음악사, 중국어Ⅰ, 직업기술교육론, 한국지방사연구, 한국철학사, 한국현대시론, 현대기업경영론, 현대미술의 이해, 회계와 사회	30
2 개 전공	경제성공학, 게이트볼, 검도Ⅰ, 골프Ⅰ, 교육심리학, 농구Ⅰ, 무역학개론, 문예창작, 물리학, 배드민턴, 볼링, 산업공학개론, 세계음악문화, 아동학개론, 연극개론, 영어강독Ⅰ, 영어학개론, 영어회화Ⅰ, 영작문Ⅰ, 의복과색채, 축구Ⅰ, 현대음악개론, 탁구, 통계학, 평생교육론탐구, 한국근대회화사	26
3 개 전공	가족관계, 가족상담및치료, 관광학개론, 사회학개론, 생활예절, 생활지도와 상담, 수영Ⅰ, 스키, 스포츠마사지, 식생활과건강, 아동, 가족, 공동체, 외식산업창업및경영, 유도Ⅰ, 코디네이트미학, 행정학개론, 호신술, 화훼장식	19
4 개 전공	미술치료, 사회복지개론, 생물학개론, 스포츠댄스, 식품학, 아동발달, 에어로빅	7
5 개 전공	경제학개론, 법학개론, 부모교육, 산업심리학, 상담심리학, 정보처리, 조형예술론	7
6 개 전공	동양미술사, 레크리에이션, 미학개론, 실용영어회화, 심리학개론	5
7 개 전공	PC활용Ⅰ, 클래스피아노Ⅰ	2
8 개 전공	디자인론, 서양미술사, 음악감상법Ⅰ	3
9 개 전공	음악개론Ⅰ	1
10개 전공	국악개론Ⅰ, 음악사Ⅰ, 인터넷활용Ⅰ	3
11개 전공	경영학개론	1
13개 전공	인간관계론	1
14개 전공	멀티미디어개론	1
15개 전공	컴퓨터그래픽Ⅰ	1
24개 전공	전산개론	1
계		108*

* 전공-교양 호환과목 110개 중 중요무형문화재와 관련된 '무형문화재개론'과 '세시풍속론'2과목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결혼과 가족’을 포함한 30개의 호환과목은 각각 1개 전공과 관련되며, ‘경제성공학’을 포함한 26개의 호환과목은 2개 전공과 관련된다. ‘가족관계’를 포함한 19개 과목은 3개 전공과 관련되며, ‘미술치료’를 포함한 7개 과목은 4개 전공과 관련되고, ‘경제학개론’을 포함한 7개 과목은 5개 전공과 관련된다. 그리고 ‘경영학개론’, ‘인간관계론’, ‘멀티미디어개론’, ‘컴퓨터그래픽Ⅰ’, ‘전산개론’의 과목들은 각각 11개, 13개, 14개, 15개, 24개의 전공과 관련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공-교양 호환과목들은 최소 1개에서부터 최대 24개까지의 전공들과 관련되고 있다.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한 과목이 전공-교양 호환과목으로 편성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목에 따라 어떤 과목은 1개의 전공과 관련되고, 어떤 과목은 24개의 전공과 관련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일관성 있는 규칙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예컨대, 경영학 전공의 전공필수인 경영학개론과 경제학개론은 전공-교양 호환과목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체육학 전공의 전공필수인 체육학개론은 전공-교양 호환과목도, 순수 교양과목도 아니다.

‘○○○개론’의 명칭을 지니는 많은 과목들이 호환과목으로 편성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이는 호환과목의 편성이 어떠한 근거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한 일관성 있는 원칙 합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현재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은 전공-교양 호환과목을 편성한 근거나 기준이 부재함으로 인해 전공에 따라 전공-교양 호환과목 편성 현황의 차이가 있다. 각 학사과정의 전공별로 전공-교양 호환과목이 편성된 현황은 <표6>과 같다.

<표 6>에서 나타나듯이 전공-교양 호환과목을 편성하고 있는 각 전공들을 파악한 결과, 학사과정에서는 65개의 전공이, 전문학사과정에서는 56개의 전공이 전공-교양 호환과목을 편성하고 있다. 학사과정에 개설된 전공은 현재 모두 105개 전공이며, 이 중 약 61%의 전공에서 전공-교양 호환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학사과정에 개설된 전공은 현재 모두 96개이며, 이 중 약 58%의 전공에서 호환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그리고 학사과정에서 호환과목을 편성한 전공들 중 각 전공에 포함된 호환과목의 수는 최소 1개에서 최대 1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전공별 전공-교양 호환과목 편성 현황

호환 과목수	학사 과정	전공 수
1과목	문예창작학, 중어중문, 문헌정보학, 경제학, 관광경영학, 호텔경영학, 광고학, 부동산학, 원예학, 항해학, 전자공학, 디지털아트학, 방사선학, 의무기록학, 임상병리학, 치위생학,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학, 실내디자인, 의상디자인, 영화학	21
2과목	철학, e-비지니스학, 회계학, 법학, 기관공학, 컴퓨터공학, 매체공학, 정보보호학, 산업공학, 물리치료학, 안경광학, 작업치료학, 피부미용학, 아동미술학, 연극학	15
3과목	안전공학, 무용학, 경호비서학, 국악학	4
4과목	사회복지학, 행정학, 식품조리학, 정보통신공학, 태권도학, 회화, 피아노	7
5과목	국어국문학, 동양화, 영어영문, 아동학, 청소년학, 전자계산학, 멀티미디어학, 화예학, 현대공예, 관현학, 교회음악, 성악, 음악학	13
6과목	경영학, 작곡	2
7과목	사학	1
9과목	심리학	1
19과목	체육학	1
계		65

여기에서 학사과정의 전공들 중 61%의 전공에만 호환과목이 개설되었다는 점과 각 전공별로 편성된 호환과목의 수가 1개에서 19개까지 편차가 크다는 점은 서로 관련지어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다. 전공에 따라 전공-교양 호환과목을 편성하기도 하고 편성하지 않기도 하였다는 점은 일단 각 전공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어떤 전공은 전공-교양 호환과목을 편성한 반면, 다른 전공은 전공-교양 호환과목을 편

성하지 않은 것인지 그 근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공-교양 호환과목을 편성하기 위한 편성의 방향이나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관련 전공이 3개 이상인 교양 과목에 한하여 전공-교양 호환과목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전공-교양 호환과목 중심의 전공 학점 이수 가능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특정한 전공에는 전공-교양 호환과목이 과다하게 편성됨으로써 전공-교양 호환과목 위주의 전공과목 이수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전공교육이 전공과목이 아닌, 전공-교양 호환과목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전공-교양 호환과목을 19개까지 편성한 체육학 전공의 경우, 필수과목으로 9개의 과목이 있으며, 선택과목으로 62개의 과목을 편성해 놓고 있다. 이 중 19개의 전공선택과목이 전공-교양 호환과목으로 편성되었다. 체육학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전공학점 60학점 중, 필수과목 27학점을 제외하고 나면 33학점의 선택과목 이수학점이 필요하다. 33학점은 전공-교양 호환과목 11개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이다. 전공-교양 호환과목 19개 중 11개 과목을 전공으로 인정 받고, 나머지 8개의 과목을 교양으로 인정 받는다면, 교양학점 30학점 중 24학점을 전공-교양 호환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순수 교양과목 2과목만 이수하면 교양학점과 전공학점을 모두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일반선택과목도 교양과목들 중에서 이수하게 된다면, 이는 체육학 학위 취득보다는, 체육 관련 교양학위 취득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는 전공-교양 호환과목을 과다하게 편성한 전문학사 과정의 레저스포츠, 생활교양, 아동·가족 전공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체육학, 레저스포츠, 생활교양, 아동·가족 전공의 경우,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매우 친숙한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에 타 전공보다는 교양 교육의 차원에서 더 접근이 용이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학점은행제가 관리하는 교육이 고등교육이라는 점에서 보면, 교양과목 위주의 전공 교육보다는 전공과목 위주의 전공 교육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공-교양 호환과목을 과다하게 편성한 전공의 경우, 순수 전공과목보다는 전공-교양 호환과목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컨대, 호환과목 이수 상한선으로 2과목까지만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전공-교양 호환과목 설정 근거 부재	⇒	관련 전공이 3개 이상일 때 호환과목으로 설정
전공-교양 호환과목 중심의 전공 학점 이수		호환과목 2과목까지 전공으로 인정

[그림 4] 전공-교양 호환과목의 문제점과 개정안

Ⅳ. 결 론

이 연구는 평생학습사회의 중요성에 부응하여 발전하고 있는 학점은행제의 표준교양교육과정의 편성 현황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영역 간 과목 균형 편성, 영역별 과목 이수, 전공-교양 호환과목의 편성 및 이수의 세 가지 측면에서 표준교양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탐색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 교양교육과정의 영역간 과목 편성의 측면에서는 현행 '인간과 사회', '예술·문화·체육' 영역의 개설 과목이 과다한 반면, ' 국어와 문학', '외국어' 영역의 개설 과목이 빈약한 현상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영역간 과목 편성의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교양 영역 일부를 통합

하거나 과목을 신설·폐지·통합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영역별 과목 이수의 측면에서는 특정 영역에서의 집중 이수 문제와 전공과의 비연계 문제를 지적하였다. 특정 영역에서의 집중 이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 대학교에서의 교양 교육의 강화의 변화에 부응하여 최소한의 다양한 영역에서 각 영역별로 각 1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전공과의 비연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양핵심과목제와 전공별교양필수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셋째, 전공-교양 호환과목 편성 및 이수의 측면에서는 호환과목 설정 근거의 부재와 호환과목 중심의 전공학점 이수 문제를 지적하였다. 호환과목 편성 및 이수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공-교양 호환과목을 편성하는 체계적인 준거와 호환과목의 전공학점 인정 허용 상한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 진학의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새로운 진로를 개척해가려는 사람들에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점은행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표준교육과정의 질 관리가 요청되며, 이 연구에서는 특히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현황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향후 성공적인 교양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이에 관한 실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교육인적자원부(2004). 표준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1호.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6). 학점은행제 운영편람, 기타자료 MP 2006-2.

김재춘・김재현・나장함・신경석,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2006),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6-37.

김형철・김홍주・유현숙・최돈민・성기선・이종섭(1999). 한국 교육의 중장기 비전,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99-35.

박인종・오병진・김태준・류경숙・고영주・유지윤(2001). 학점은행제 질 관리체제 구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기본연구 RR 2001-19.

백은순・양병찬・정기수・류경숙・신종수・이정희(2003). 학점은행제 체제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3-36.

백은순・최상덕・신종수・정구헌(2004), 학점은행제 운영체제 개선방안, KEDI Position Paper 제1권 제22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KP 2004-22.

백은순・홍영란・이희수・오태진・김경수・변종임(1997). 학점은행제 운영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97-58.

부산대학교(2006). 부산대학교 요람.

서울대학교(2006). 서울대학교 요람.

성균관대학교(2006). 성균관대학교 요람.

영남대학교(2006). 2006학년도 교육과정.

유균상(2005). 학점은행제 제도 개선 방안.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 KEDI 학점은행 세미나. 학습국가 구현을 위한 학점은행제의 역할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M 2005-11. 25～47.

이현청(2005). 21세기 대학 패러다임의 변화, 대학교육 135. 79～82.

정기수(2005).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자율성 제고 방안, 2005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 KEDI 학점은행 세미나, 학습국가 구현을 위한 학점은행제의 역할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M 2005-11. 49～75.

최운실(2005).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학점은행제의 기능과 역할 제고, 2005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 KEDI 학점은행 세미나, 학습국가 구현을 위한 학점은행제의 역할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M 2005-11. 1～23.

최돈민・이희수・윤여각・유선희(1999).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99-45.

Longworth, N. & Davis, K.(1996). Lifelong learning. London: Kogan Page.